

다이와보 - 중국에 세 번째 봉제공장의 건설을 추진

다이와보는 현재 해외에 갖고 있는 주요 봉제 거점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투자비율 57%의 자(子)회사 “다야니·가먼트”와 중국 강소성(江蘇省)의 상하이(上海)에서 멀지 않은 소주(蘇州)에 있는 투자비율 71%의 “소주·다이와·니트·가먼트”의 두 개 봉제공장을 갖고 있다.

소주·다이와·니트·가먼트는 1995년에 편기 14개와 봉제 시설을 설치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 작년(2001년) 12월에는 T-셔츠의 봉제 능력을 늘려, 현재는 월간 50만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코트도 월간 8천매를 봉제할 수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T-셔츠는 일본의 직영 방적 공장에서 뽑은 원사만으로 짜고 봉제하여 일본과 동일한 품질 수준의 제품을 일본시장에 공급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주량(受注量)이 늘고 있는 상황이며, 성수기에는 월 90만매까지 주문을 받고 있어 주문 받은 양이 봉제 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외부 공장에도 생산을 맡겨 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이와보가 소주공장에 이어 중국내의 두 번째 T-셔츠 봉제공장 설립을 계획하게 된 원인은 소주공장제품에 대한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함과 동시에 매년 오르고 있는 인건비를 줄여 코스트를 억제하려는 뜻도 있다.

새로운 봉제공장은 소주공장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 직영방적공장으로부터 편성용 원사를 전량 공급받아 일본에서 생산된 T-셔츠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소주공장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소주공장의 절반정도 규모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현지에서 원사를 구하여 생산하던 인도네시아의 “라야니·가먼트”도 앞으로는 일본 공장에서 생산된 세 번수의 면/폴리에스테르 혼방사로 품

질이 좋은 드레스·셔츠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이와보는 바지 및 스커트 등 하의(下衣)의 봉제 거점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와보는 2002년도 말까지는 일본내에 있는 두 개의 직영방적공장에서 생산되는 실의 절반을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만들 계획이며, 장차는 두 개의 직영공장에서 생산된 실을 전량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